

Analo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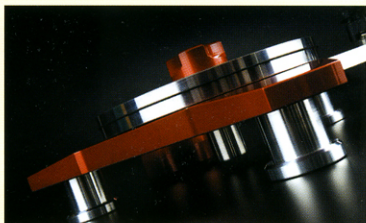
기본기가 충실한, 잘생긴 턴테이블

# V.Y.G.E.R. Timor

글 | 허영호



세팅을 완성해놓고 몇몇 음반을 들어보면서 소리를 평가해본다. 일단 사운드 스테이지가 매우 견고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리지드 형식의 이점이기도 하고 두꺼운 금속 플레터를 사용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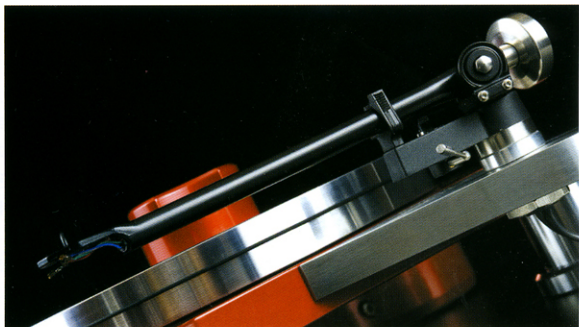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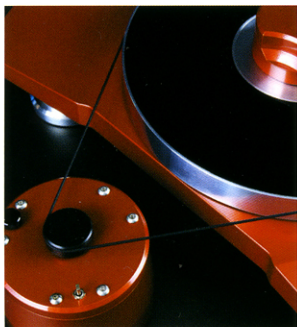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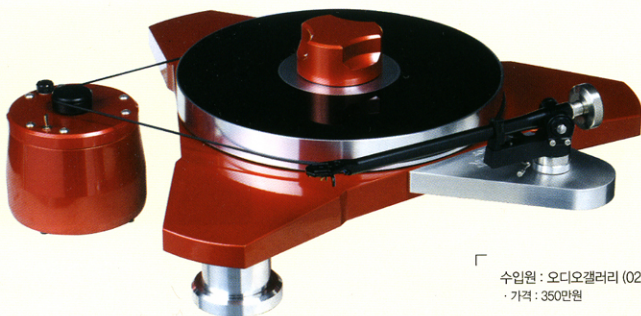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가 극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CD의 등장 이후 일부 애호가들에 의해 명맥을 유지해오던 아날로그 재생은 이제 고급 오디오 재생의 메인스트림으로 다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아날로그 재생에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하는데 특히 턴테이블의 기술에 있어서 그러하다. 아날로그 재생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기술이므로 과거의 명기가 지금도 명기라는 소위 '번티지' 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날로 발전하는 제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현대의 기기들로 궁극의 재생을 실현할 수 있다는 '하이테크' 파들이 있는 것 같다. 이를 소프트의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 데카의 명반들을 당대의 턴테이블과 카트리지의 조합에서 아직도 그 어느 시스템에서도 얻기 어려운 완성도 높은 사운드로 재생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날로그 음반의 진성기라는 70년대, 심지어 디지털로 녹음된 80년대의 음반들이 최신 턴테이블과 카트리지의 조합 속에서, 정말 이렇게 좋은 소리가 담겨 있는 음반이구나 다시금 감탄하는 소리를 내준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다양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턴테이블 메이커들이 속속 등장하는 게 아닐까 한다.

바이거는 이탈리아의 턴테이블 생산업체로서 국내에서는 기함급의 인디언 시그너처라는 턴테이블로 많이 알려져 있다. 이 미 수십 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아날로그 기계를 만든 경험이 축

적된 회사라고 알려져 있으며 공정의 대부분을 수공업으로 마무리하고 있다고 한다. 인디언 시그너처는 그 육중한 무게, 진공펌프를 활용하는 대규모 스케일의 메커니즘, 그리고 매우 높은 수준의 리니어 트래킹 암까지 세트로 디자인된 거함 플래그십 제품인데, 디자이너가 직접 한국에 와서 세팅을 해주기도 했다고 하며, 국내에서도 이미 수요가 팔린 것으로 알고 있다. 월간 오디오에서도 지난 6월호에 아날로그 특집 시리즈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번 제품 티모르는 바이거 턴테이블 중에 막내격인 제품으로서 바이거의 디자인 철학과 소리의 개성을 반영하면서도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현하려는 의도로 디자인되었다. 간단히 제원을 정리해보면, 일단 베이스부는 리지드 형식의 단순한 구조로 설계, 세시는 스킨레프 형식의 3점 지지로서 30밀리의 항공기 부품용 고급 알루미늄을 가공해서 제작, 톤암 베이스도 동일 재질의 알루미늄 20밀리 블록을 절삭해서 제작하였다. 턴테이블 구동부는 5.5kg에 달하는 30밀리 두께의 알루미늄을 가공해서 플레터를 제작, 그 상판부에 특수 댄핑제를 가공해서 부착해 놓았는데 별도의 매트 없이 디스크를 그대로 올려놓고 운용하도록 설계되었다. 베어링은 3포인트 접점방식의 청동 베어링을 사용하고 있으며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제어되는 하이토크의 고급 모터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터에는 스위





수입원 : 오디오갤러리 (02)926-9084  
· 가격 : 350만원

칭 전원의 이덱터가 제공된다.

한편 턴테이블과 함께 제공되는 톤암은 영국 레가의 RB300 OEM 버전이다. 필자가 과거에 미국에서 거주할 당시 약 5년 가까이 애용했던 톤암인데 정말 그 가격이나 걸 모양새만을 보고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톤암으로서 이 가격대에서 흔치않은 다이내믹 밸런스 형식이다. 해외에서는 암 리드선, 카운터웨이트, 암 보드 등 다양한 업그레이드 키트가 발표되고 있는데 셋업이 매우 쉽다. 레가 RB300은 좋은 의미에서 캐리커가 없는 톤암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대로 구동하면 매우 높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재생음의 스케일은 다소 작은 편이지만 투명한 입장감을 잘 만들어낼 뿐 아니라 사운드 스테이지를 매우 입체적으로 조망해주었다는 것이 필자의 기억이다. 사용하는 카트리지의 성격에 따라 카운터웨이트를 사용해서 스태틱(Static)으로, 또는 내부 스프링을 사용한 다이내믹 밸런스로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필자의 경험상 로우 컴플라이언스 카트리지에는 스태틱으로, 하이 컴플라이언스에는 다이내믹으로 침압을 조정하는 것이 좋았다. 레가 암은 암 높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 테이블과 톤암 사이에 이격저장 간단한 플레이트를 끼워 넣으면서 임기응변으로 조절할 수 있어 조절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이 턴테이블의 아름다운 도장 마감 상태. 이탈리아의 표면 마감 기술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마감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매혹적이다. 필자에게는 빨간 색의 제품이 제공되었는데 존재감도 있고 빨간 비행접시 같은 모습이 정말 앙증맞게 예쁘다. 빨간색 이외에도 파랑색, 은색, 무연탄색 등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고 한다.

고무 댄핑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리지드 형식의 턴테이블이니 일단 대리석(오석) 위에 올려놓고 세팅을 하면서 불필요한 진동을 최소화했다. 카트리지의 경우 데논의 103R을 사용했는데 과거 필자가 레가 암과 함께 사용한 카트리지가 103이라서 기본적인 소리성향이 익숙했다. 알텍 계열의 MC 트랜스를 통해서 KTS 소네트의 포노단으로 일단 들어보니 빈티지 계열의

트랜스 증폭 기술과 턴테이블이 그리 상성이 좋지 않은 듯하다. 일단 소리의 밀도가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뽀뽀하다고 할까. 그래서 크렐의 KPA 포노 앰프를 통해서 연결해서 로딩을 조금 조정해보니 소리가 훨씬 안정되었다. 나머지 시스템은 워드 510 노노블록과 ATC SCM20이다.

세팅을 완성해놓고 몇몇 음반을 들어보면서 소리를 평가해본다. 일단 사운드 스테이지가 매우 견고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리지드 형식의 이점이기도 하고 두꺼운 금속 플래터를 사용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로린 마젤이 비엔나 필하모닉을 지휘한 말리의 7번 교향곡에서(CBS 12M 39860) 프로듀서 스티븐 엠스타인과 녹음 자문역 토니 폴크너가 비엔나 필하모닉의 악기군 위치를 어떻게 정리해서 녹음하고 있는지가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한편 배경이 정숙함도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사용된 모터의 품질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베어링의 섬세함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다. 테카에서 발표된 도라티 연주의 하이든 교향곡 전집(Decca HDNA 1~46) 중에 65번 녹음에서는 자동차 엔진소리도 들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는데 이러한 배경잡음이 명백하게 들려온다. 일단 녹음된 정보를 모두 끄집어내려는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너무 극명한 디테일은 취향에 따라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고 역대의 표현이 명쾌하면서도 사분한다. 무티가 라스칼라를 지휘한 베르디의 '운명의 힘'(EMI EX27 05223)은 최악에 가까운 디지털 레코딩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시도 도밍고 전성기 최고의 음반이기에 종종 듣게 되는 음반인데, 3막 서두부분에 주인공 알바로가 부르는 아리아 '불행한 이들에게 인생은 지옥'에서 도밍고의 중고역 발생과 흥음을 생생하게 잘 묘사하면서도 까칠하게 녹음된 디지털 특유의 고역을 교묘하게 숨겨주는 대목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는 사실 레가 톤암이 하는 일이라고 판단되었다.

정리해보면 제대로 된 턴테이블이 갖추어야 할 기본덕목에 충실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부담 없는 가격에 바깥기 사운드를 접해볼 수 있는 턴테이블이다. **A**